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ethod of Incarnational Evangelism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임영호 교수 / 고신대학교 신학과
Prof. Dr. Young-Hyo Im

1. 서론	141
2. 성육신적 전도방법	143
1) 보여주는 전도	143
2) 낮아지는 전도	149
3) 삶을 함께 하는 전도	153
4)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157
5) 은혜가 먼저 전달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전도	162
3. 결론	171

주요어 | 성육신, 복음전도, 선교, 문화이해, 은혜, 진리

요약문 |

본 논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적 전도방법을 다루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셨던 예수님의 삶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적 전도는 1)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여주는 전도였으며, 2) 전도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낮아지는 전도였으며, 3) 전도대상자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그들과 삶을 함께하는 전도였으며, 4) 전도대상자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였으며, 5) 은혜가 먼저 전달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전도였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의 전도가 제대로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전도방법,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초문화적이고 초시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형태와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효과적인 복음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불신자들의 삶의 세계 속으로 찾아 나아가야만 한다. 또한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은혜가 없는 진리전달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외침으로, 결코 전도 대상자의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가르쳐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이며 통로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하여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열매를 그 삶 속에서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deals with Jesus' method of incarnational evangelism centered on the Bible John 1:14. Jesus' life shows the most effective and concrete method of evangelism to the Christians of this generation, through which the Word became flesh and God's glory was fully revealed with grace and truth being filled.

Jesus' method of incarnational evangelism can be defined as (1) showing gospel through life, (2) being humble to understand non-believers' situation on their sides, (3) sharing life with non-believers in the consideration of their culture, (4) filling the needs of their life, (5) grace being delivered and then the truth being proved.

In this very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n the fast changing age, we need to return to Jesus' method of evangelism, the most biblical method, so as to get an abundant harves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biblical principles don't change and are characterized with trans-culture and trans-generation applicable to all the generations despite the ages change.

임영호 교수,

고신대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석사학위(Th. M.), 선교학으로 박사(D. Miss)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신학과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로 가르치고 있으며 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쿰란출판사), 논문으로는 「기독교대학과 영적성장」, 「초기한국교회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전략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사명」 등 다수가 있다.

The fact is enlightened that profound study should be done on the context of this age to do Jesus' method of incarnational evangelism.

We should present the gospel effectively in their languages with understanding non-believers' culture, world-view and view of value.

Furthermore, as Jesus' lif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the Christians of today should go into the secular and non-Christians' world with the life full of grace and truth.

And according to Jesus' life and ministry, the evangelists of today should bear in mind the fact that delivering the truth without grace is a useless claiming echoing the empty air and they cannot penetrate through the non-believers' heart

In conclusion, churches currently existing in this world, that is, our Lord's body, are tools and passages through which Christ' ministry continues to be carried out. The Lord who is the head of churches continuously performs His acting and teaching ministry through His churches (Acts 1:1).

Accordingly, we should have in mind that today's churches when they become communities filled with grace and truth can not only reveal God's glory like Jesus' life but also make abundant fruits of evangelism, enjoying all blessings which the Lord with all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heaven and earth promised to the evangelists.

1. 서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선교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부름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셨다.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크고 우선적인 사명으로 전도하는 이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있는 일이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선교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적 사역이었으며 예수님의 전도방법 역시 성육신적 전도였다는 사실을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요 1:1-18)의 절정인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성육신적 전도방법과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한가지 목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 일을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적 방법으로 찾아 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전도도 예수님의 전도자세와 방법을 따라 이루어질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효과적인 전도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인 폴 허버트(Paul

Hiebert)박사가 쓴 *Incarnational Ministry*란 책이 우리말로 「성육신적 선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가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전도가 되고 성육신적 선교가 되어질 때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처럼, 거룩한 계시도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육신을 입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시대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 속으로 성육신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복음전도자요 설교자인 존 스토틀(John R. W. Stott)도 선교와 전도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선교는 그분의 선교를 모델로 해야 한다. 실로 모든 진정한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이다. 그것은 정체성을 상실함이 없이 동일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확신과 가치관들과 기준들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가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²⁾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교수인 폴 트립(Paul D. Tripp)은 “우리는 성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고 말로도 나타

1) 폴 G. 히버트 & 엘로이스 히버트 매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Incarnational Ministry*, 안영권, 이대현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 416.

2)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2, p. 358.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스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일이란 하나님의 사명과 방법과 인격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성육신적 사역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³⁾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적 전도방법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므로 오늘날의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원리와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성육신적 전도방법

(Method of Incarnational Evangelism)

1) 보여주는 전도(오디오적인 전도에서 비디오적인 전도로의 전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의미한다. 조셉 알드리치(Joseph C. Aldrich)는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진리를 언어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전달방법은 성육신이 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⁴⁾ 따라서 성육신적 전도방법은 예수님의 전도방법으로 이 전도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전도방법인 것을 본문 요 1장 14절의 말씀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눈

3) 폴 트립,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War of Words*, 윤홍식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3, p. 145.

4) Joseph C. Aldrich, *Life-Style Evangelism*, (Portland, Oregon: Multnomah Press, 1981), p. 31.

에 보이는 사람이 되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즉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는 주로 소리로 듣는 시대였음을 암시해 주고 있음과 동시에 신약시대는 눈으로 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리를 통하여 소명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별명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1:23)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되어진 신약시대는 요 14:9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미디어가 바뀌어 졌음을 말씀하셨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큰 차이점도 산업사회는 듣는 시대였다면 정보사회는 보는 시대라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성과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정보시대의 전도는 들려주는 전도에서 보여주는 전도로의 전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말을 그럴 듯 하게 해도 정착 와서 보니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들은 것만 못하더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전도나 교회사역이 되어진다고 할 때, 이런 사역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의 구조로 고착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에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사역들에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성육신적 전도방법은 말보다도 생활이 앞서는 전도로 특징지어진다. 누가는 그가 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행하시는 것이 가르치

시는 것에 앞섰음을 분명히 언급하므로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사도 베드로도 그가 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부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말로 하지 말고 경건한 생활로 주님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란의 자유대학교의 선교학 주임교수였던 베르카일(J. Verkuyl)은 1세기 초대교회의 경이적인 전도폭발과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 한가지 요인을 언급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의 방식”(The attractive lifestyle of early Christians) 때문에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⁵⁾ 그 당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도 순결하고 고결한, 매력적인 삶의 모습을 목격하고서는 그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이혼이 없는 아름다운 부부생활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받아,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짧은 기간동안에 로마제국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 여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도 아름답고 고상하고 매력적이었기에, 불신자들이 볼 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전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5) J.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8, p. 333.

예수님께서도 마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삶을 불신자들이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복음의 내용은 잘 모르지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환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마 5:14)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89%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10%는 청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그리고 1%는 기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고 한다.⁶⁾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99%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도를 받는 불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TV에 나오는 일부 몇 사람의 부흥사들 때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부흥사들의 스펀들과 위선적인 삶 때문에 복음전도에 엄청난 장애물로 도리어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와같이,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교인들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부도덕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고 할 때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우리의 삶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 그러므로 존 스토틀(John Stott)는 “사람들은 우리

6)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강준민 역, 두란노, 1997, p. 72.

7) 제랄 바즈,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예영, 1996, pp. 27-28.

8) 미국의 여론 조사가 조지 바나(George Barna)에 의하면, 미국에서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이 27%로 23%인 불신자들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hilip Yancey, *What So Amazing About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1997, p. 263.

가 전파하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우리의 복음전도는 모든 신빙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실로 복음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 전도자의 말과 행동이 통합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복음 전도자 자신의 삶이 복음과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⁹⁾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박사는 “사랑이 기독교인의 하나의 참된 표지”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달고 다니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표지이고 연합은 사랑의 증거이다. 세상사람들은 오직 이 표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 한바가 있다.¹⁰⁾

이 쉐퍼의 언급은 주님의 말씀의 설명으로서, 요 13장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과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듯이(요1:18, 14:9, 골 1:15), 이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9) John Stott, op. cit, p. 254.

10) 프란시스 쉐퍼, 「20세기말의 교회」,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김재권 역, 생명의 말씀사, 1972, p. 217.

있다. 그래서 존 스토틀(John Stott)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선포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이전보다 더욱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는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람 바즈(Jerram Barrs)라는 미국의 카버넌트 신학교 선교학 교수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밖으로 과시해야 한다”고 그가 쓴 「현대 문화속의 전도」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¹²⁾

또한 「*Lifestyle Evangelism* (생활전도)」라는 책을 쓴 미국의 죠셉 알드리치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한다”¹³⁾ 고 말하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힘은 건 강한 교회와 건전한 결혼생활이다. 이 둘은 상호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결혼생활이다”¹⁴⁾ 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이것이 지속적인 복음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가지된 그리스도인이 붙어있으므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

11) John Stott, op. cit, p. 256.

12) 제람 바즈, op. cit, p. 32.

13) Joseph C. Aldrich, op. cit, p. 28.

14) Ibid, p. 20.

여주는 삶이 되어질 때에 전도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게 될 것을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요 15:4).

2) 낮아지는 전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언급은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빌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신을 비운 사람으로 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복음 전도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위치로 낮아져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해야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질 때 복음전도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넘어질 수 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라는 겸손한 자세를 지니지 못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하고 군림하는 자세로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이런 자세로 대하지 아니하셨는데,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면서 전도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아니했던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한 이 여인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구약의 율법에다가 이방종교를 섞어버린 혼합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다섯 번에나 했고 그 당시에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었던, 너무도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그런 여인으로서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다. 더욱이,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지 아니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때 자신이 헬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에 대해 감사할 정도로 여자를 무시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위치로 낮아져서 그를 상대해 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빌려서는 아무 것도 먹지 아니하는 전통을 깨트리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도 상대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친히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므로 참으로 낮아지시는 겸손한 자세로 존중과 사랑으로 그를 상대해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

세리장 삭개오를 전도하신 방법도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심으로 그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깊은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스스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지탄과 따돌림을 받는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에게 지옥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삭개오야 내려 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고 그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 이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도 고전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전도 대상자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그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숭배에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 났지만, 아레오바고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전도를 시작한 것은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준

15) 제랍 바즈, 「복음의 다리놓기」, *Building Bridges for the Gospel*, 양혜원 역, 예영, 1996, p.

낮아짐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행 17:16-22).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의 장점과 인격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을 무시하는, 이런 과시적인 전도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낮아지는 전도, 감동적인 전도, 모든 사람을 인격적인 한 개인으로 대하는 마음 훈훈한 전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도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삶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접근해 나갈 때에 복음전도의 접촉점이 형성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해서 소금과 같이 조용히 스며들면서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전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람이 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는 전도를 친히 실천하신 것처럼, 이런 낮아짐의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주차공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주일날만 되면 교인들이 차를 아파트 주변 도로나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나 허락없이 주차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지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는데 엄청난 장벽을 교회가 스스로 쌓아놓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주민들을 배려하고 참으로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접근해 나갈 때 지속적인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최대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불신자들이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오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에 어렵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예수님처럼 참으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진정한 복음전도에는 이 낮아짐의 측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 또한 자신을 낮추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공하는 복음 전도의 모델이다. 진정한 복음전도에는 반드시 자신을 비우는 일과 자신을 낮추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낮아짐의 자세는 하나의 전도기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과 참된 존중에서 나오는 복음전도자의 근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삶을 함께 하는 전도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를 고려하는 전도)

요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거한다”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스케노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는 의미를

16) 존 스토틀, 「진정한 기독교」 (Authentic Christianity), 정육배 역, IVP, 1997, p. 416.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삶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 문화 속으로 그 시대의 언어와 관습을 사용하시는 이런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으로,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전통적인 도덕기준이 붕괴되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불신자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을 두려워하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격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말도 하려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¹⁷⁾ 이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임의로 어떤 공동체로 모이게 할려고 할 때 서로 떨어질려고 하는 현상으로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격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마 5:14-16, 요 17:15-21, 고후 2:1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함께 거하므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전도의 모범을 보였던 사도바울은 고전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यो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यो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यो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방법이 바로 “동일성의 원리”(principle of identification)로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의 형태로서 복음을 오해없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였으나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전도 방법을 사용하던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의 방문지역이었던 루스드리는 이방지역으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와 바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고,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식에 모순되는 알지 못하는 신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했고, 정치인이었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는 그의 관심 사항에 맞게 하나님을 공의로운 통치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제람 바즈(Jeram Bars)는 “바울은 자기의 청중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 바울이 칭찬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바울은 청중들의 생각 속에 얽혀있는 부분적인 진리나, 그들 삶

17) 제람 바즈,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예영, 1996, p. 31.

속에서 칭찬할 만한 덕목들을 찾아내 자신과 청중들을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바울의 접근방법을 설명한바 있다.¹⁸⁾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던 것이다.¹⁹⁾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일회성 전도보다는 접촉점을 찾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삶을 함께 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관계중심전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관계중심전도”는 이미 맺고 있는 기존 인간관계와 또한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간관계를 복음전도의 통로로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도방법으로 다른 말로는 “오이코스 전도방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교회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스(Elmer L. Town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고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2%, 목회자를 통해

18) 제팸 바즈, 「복음의 다리놓기」, *Building Bridges for the Gospel*, 양혜원 역, 예영, 1996, p. 181.

19) 사도 바울이 전도대상자들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구체적인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행 17장 24절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요”라는 부분은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우스」, *Timaeus*에서 인용한 것이며, 행 17장 27절의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구절은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유래되어진 것이다. 또한 행 17장 28절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구절은 크레타(Creta)의 시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 B.C. 600년경)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4행시 “크레티카”(Cretica)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행 17장 28절 후반절의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는 구절은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Aratus)(B.C. 315-240년경)의 글 페노메나(Phaenomena)에서 인용한 것이다(Richard N. Longenecker,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Acts*, 기독교회사, 1982, p. 636 과 제팸 바즈,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예영, 1996, p. 166을 참고하라).

서가 6%, 조직적인 복음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6%였던 반면에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86%였다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대상자는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자주 접촉하는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주지역의 이웃 사람들인 것을 인식하여, 이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전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복음전도학자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전도대상자들의 문화이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우리는 참으로 번역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현대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치평가, 정치 사회적 인식, 식별, 시사적 업무-이 모든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함께 하려는 우리의 과업 속에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복음에 그들의 옷을 입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²¹⁾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전도대상자들과 삶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예수님의 사역이 교훈해 주고 있다.

4)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20) Peter C. Wagner, ed.,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86, p. 53.

21) Michael Green,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Nashville: A Division of Thomas Nelson Pub.), 1990, p. 140.

영광이요”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요한복음 전체와 나머지 사복음서가 증거해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므로 그 혼인 잔치 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조셉 알드리치(Joseph C. Aldrich)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알 때 복음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²²⁾

마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바쁘신 사역일정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의 손을 만져 주심으로 치료해 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말씀과 행위가 함께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착한 일과 고침의 사역으로 요약해 주고 있다.

22) Joseph C. Aldrich, op. cit, p. 95.

고신대학교의 황창기 교수는 “성경과 복지”라는 그의 논문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담당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본질적인 임무와 본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병을 담당하시고 깊어지신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²³⁾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이나 병든 자들이 불쌍하고 측은하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동정과 구제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나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동정과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다루어 주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복지나 병든 자들을 외면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며, 교회의 본연의 임무 수행 측면에서 교회 안에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돌보는 전담부서가 조직되어야 하고, 이 사역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역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고민이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여줄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이 교훈해 주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청소년이면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진정한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대상자에게 적절한 필요들을 채워 줄 수 있는 이런 전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복음전도자요 설교자인 존 스토틀(John Stott)는 복음전도와 사랑의 섬김(사회 활동)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씀과 행동이 한데

23) 황창기, “성경과 복지: 교회의 본분으로서의 장애인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신학과 선교이슈, 기독교사상연구 제 6호,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2000, p. 62.

결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결합되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음 같이 제안하고 있다: “각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의 필요는 많고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회의 규모가 어떠한 간에 교인들은 그들의 은사와 부르심과 관심사에 따라 ‘연구와 활동 그룹’을 만들어, 각각 이웃의 복음 전도적, 목회적, 사회적 필요를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서로 다른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 동정심을 갖고 관여하는 것은 성육신 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형태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⁵⁾

복음전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전도에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델로서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를 제시하면서 이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신앙공동체였음을 언급한바 있다. 그는 교회가 그 지역의 요구를 분별하여 사역하므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자신을 내어놓는 교회들은 성장한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교회들은 자멸한다. 우리의 복음전도가 효과적이 되려면 교회는 주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요구는 병이나 노쇠함으로 고독하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의 요구일지도 모른다. 탁아시설 공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민자들에게 언어교육을 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거리의 부랑자들이 갈 곳을 준비하는 일일 수도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일일 수도 있다. 교회는 지역의 요구를 분별하여 비록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적절한 교회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때에 사람들은 그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적절하게 보지도 않고 그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²⁶⁾

그러므로 특정지역의 교회에 적합한 전도전략은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분석하여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과 우선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 영역에 대하여 집중하는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므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지속적인 영혼구령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관심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치유사역의 분야도 21세기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적극 개발되어져야 할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의 3대 사역중의 하나였던 치유사역이 교회 안팎으로 되살아날 때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놀랍게 향상시켜서 암과 같은 어려운 질병들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들을 불신자들에게 소개하고, 자신들이 삶 속에 적용해 나감으로 신앙의 체험들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⁷⁾

24)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2, p. 341.

25) *Ibid.*, p. 353.

26) Michael Green, *op. cit.*, p. 101.

27) 최근에 건강회복과 치유에 관한 저서들과 자료들이 계속하여 출판되어지고 있다. 윌리엄 배커스의 「병을 낮게 하는 믿음의 치유력」(진흥출판사), 배성호의 「두뇌 프라임」(두레시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은혜가 먼저 전달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전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양태 기둥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로서 “카라” 즉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언급을 하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와같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었던 놀라운 기쁨이 매력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복음전도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왔던 것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도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 소식을 소개하려 한다면 거룩한 생활, 따뜻하고 우호적인 생활, 기쁨이 넘치는 생활, 인정 많은 생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것이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매력력을 주지 못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메시지도 매력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⁸⁾

그는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나는 성령께서 복음전도를 하시는 중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감화력을 통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강력한 복음전도자에 의해 그리스도께 내몰려지는 것보다는 기쁨에 가득찬 거룩한 공동체에 의해 더 자주 그리스도께 끌린다”고 말하고 있다.²⁹⁾

이와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

또한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사랑스러움(loveliness), 칭송(respect), 매력(charm), 용서(forgiveness), 감사(thanks)”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 눅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사랑스럽다는 단어가 바로 원문 성경에 은혜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전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기에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은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다.

행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칭송”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엡 4장 32

28) Michael Green, op. cit, p. 264.

29) Ibid, p. 397.

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서 “용서하기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은혜의 충만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칠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너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말라”고 아무런 추궁이나 아무런 조건없이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은혜와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이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기쁨과 용서가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매력적인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charming and attractive person)가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어 진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증거해 주고 있다. 행 2장 47절의 언급대로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므로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자를 더하게 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테반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행 6장 15절에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이 사울에게 영향을 끼쳐 그가 회심하는데 적지 아니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스런 사람, 매력적인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므로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짐을 초대교회역사가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은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은혜는 사랑이다. 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 불친절한 자들에게 친절하며, 은혜를 모르고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관대한 그런 사랑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이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도망자를 찾아 다니며 가망없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거지를 거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 왕자들 가운데 앉게 하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서처럼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리의 선포에 앞서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가 먼저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엘머 타운스(Elmer L. Towns)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경우가 86%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자신이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로 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

30) 존 스토틀, 『진정한 기독교』 *Authentic Christianity*, 정옥배 역, IVP, 1997, p. 232.

게 되어짐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전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결실이 풍성한 전도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삶은 진리가 충만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로써 정직(honesty), 성실(sincerity), 신실(faithfulness)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진리”라는 단어는 “투명하고 드러나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써 거짓과 속임수에서 떠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에게는 “그 입에 궤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철저히 그 삶에 정직으로 일관하시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진리가 충만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을 거짓의 아비 마귀와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생명들을 건져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구약 말라기 2장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는 언급은 진리가 그 삶 속에 충만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나가는 직장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뇌물을 주고 받는, 이런 진실되지 못하고 부정직한 행위들에서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실천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 진리가 진리로서 올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깊이 신뢰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하므로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때, 복음전도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고 속이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5편 6절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101편 7절 말씀에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였고, 요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엄히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성경이 거짓을 배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바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은 하와를 타락의 자리로 끌어 내렸던, 바로 그 마귀의 가방에서 나온 최초의 무기가 바로 거짓이었던 것을 성경은 폭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거짓의 주범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진실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삶에서와 같이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에베소서 4

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된 것”이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 즉 요한복음 1장 14절의 “진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요한 1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속임수나 거짓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신실한 삶이 되어질 때, 한결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선교학 담당 교수인 제람 바즈(Jerram Bars)는 오늘날 X세대의 80% 이상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임을 언급하고 있다.³¹⁾ 이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요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기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였고, 요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하신바,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

며, 생명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선언인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로 전하므로 그들에게 참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할 때에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이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에서든 진리다. 진리는 객관적이며 인식자의 정신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진리다. 그리고 이 진리는 자체와 모순될 수 없는 진리다”라고 진리의 독특한 성격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다.³²⁾

또한 이 진리는 모든 속박과 매임에서 인간을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임을 요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리란 실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진리가 없이는 자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란 자유에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리가 곧 자유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삶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오로지 진리의 사람

31) 제람 바즈,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예영, 1996, p. 18.

32) 오스 기니스, 진리, 베리타스 *Time for Truth*, 김병제 역, 도서출판 누가, 2002, p. 118.

이 되어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배우는데 있다. 즉 진리 안의 삶이 자
유로운 삶의 비밀인 것이다.”³³⁾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절
대적인 것으로, 그리고 효과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없
음과 의미없음을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우상들이나, 사상들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참된 행복과 번영
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러내므로 진리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므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
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진리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고, 또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약 1장 18절에 “진
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말씀과 벨전 1장 23절에 “너
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이
를 증거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님을 닮은 자로서 그 삶을 통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
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 잠언 3장 3절 말씀에도 “인
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
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 진리와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은

은혜 속에 주어지는 진리일 때만이 그 진리가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지
고 확고하게 설수 있겠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전도가 참으로 효과
적일려고 하면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진리가 그 다음으로 전달되고
증거되어질 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만이 진리가 설수 있고, 진리가 진리로 받
아 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엡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사랑 안에서 진리
를 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은혜없이 진리만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진리는 닫혀진 마음의 문 밖에 부딪혀서 요란한 소리만 내게되
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지지 아니할 때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격으로 치부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 진리를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진리가 굳어지
지 않도록 작용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으로 복음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랑을 품고서 진리를 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3. 결론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
도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
대교회와 같이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

33) Ibid, p. 18.

그 누구보다도 가장 풍성한 실질적인 전도의 결실을 거두신 분이 있다면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영혼구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결실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전도사역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대로서, 이 시대의 특징은 3F 즉 감성(Feeling), 패션(Fashion), 여성(Female)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감성의 시대”이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광고들로서 과거의 광고는 그 물건을 사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오늘날의 광고는 논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달라져도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의 전도방법이나 접근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의 전도가 제대로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전도방법,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초문화적이고 초시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형태와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그들

의 언어로 효과적인 복음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완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도 특정 시대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전달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어 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대학(Regent College)의 전도학교수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도와 선교도 성육신적인 방법과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시어, 우리의 사상형태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자칭한다면 우리도 그와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³⁴⁾ 이와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과 사역은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복음전도는 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복음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과 오늘 이 시대의 전도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불신자들의 삶의 세계 속으로 찾아 나아가야만 한다. 또한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은혜가 없는 진리전달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외침으로, 결코 전도 대상자의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항

34) Michael Green, op. cit, p. 118.

상 명심하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성장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것처럼, 복음전도도 예수님의 전도자세와 그 방법을 본받아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처럼 결실이 풍성한 전도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이며 통로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하여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행 1:1).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열매를 그 삶 속에서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목록

- Aldrich, Joseph C. *Life-Style Evangelism*, Portland, Oregon: Multnomah Press, 1981.
- Green, Michael.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Nashville: A Division of Thomas Nelson Pub., 1990.
- Stott, John. *The Contemporary Christia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2.
- Verkuyl, J.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8.
- Wagner, Peter C. ed.,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86.
- Yancey, Philip. *What So Amazing About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1997.
- 오스기니스 진리, 베리타스(Time for Truth), 김병제 역, 도서출판 누가, 2002.
- 제람 바즈.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예영, 1996.
- 제람 바즈. 「복음의 다리놓기」 *Building Bridges for the Gospel*, 양혜원 역, 예영, 1996.
-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강준민 역, 두란노, 1997.
- 존 스토틀. 「진정한 기독교」 *Authentic Christianity*, 정옥배 역, IVP, 1997.
- 폴 G. 허버트 & 엘로이스 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Incarnational Ministry*, 안영권, 이대현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폴 트립.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War of Words*, 윤홍식 역, 도서출판 디도테, 2003.
- 프란시스 웨퍼. 「20세기말의 교회」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김재권 역, 생명의 말씀사, 1972.
- 황창기. 「성경과 복자: 교회의 본분으로서의 장애인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신학과 선교이슈, 기독교사상연구 제 6호,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2000.